

현대사회의 가족변화와 미래지향적 가족교화

발제Ⅲ.

가톨릭에서 바라보는 건강가족과 미래지향적 가정사목의 필요성

현정수 (천주교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위원,
수원교구 고잔성당 신부)

가톨릭에서 바라보는 건강가족과 미래지향적 가정사목의 필요성

현정수 (천주교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위원, 수원교구 고잔성당 신부)

1.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톨릭교회의 사제(2000년 서품)입니다. 우연치 않은 계기를 통한 만남이지만,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하여 소박하지만 진심의 나눔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초대해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 자체가 가톨릭교회의 환경이기에, 원불교의 용어와 교리에 낯설음과 표현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2. 오늘의 주제를 보면, 특히 제 1-2발표(이원재 대표, 김정현 교수)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변화와 미래사회에 대한 조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종파는 다르지만, 사목자라는 관점에서 (종교사회적) 양적-질적 통계를 잠시 유보하고, 본질적으로 오늘의 이 자리가 요청하는 고민거리에 대하여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3. 원불교에서 사용하는 ‘교화’라는 단어를 가톨릭교회에서는 ‘사목’^{Ministry}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소년교화’라는 직무에 대하여 ‘청소년사목’^{Youth Ministry}이라는 분야와 (아마도) 크게 다르지 않는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청소년교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으로서, ‘가족교화’에 대한 거시적 안목을 확보하기 위한 자리로 가톨릭교회의 청소년사목과 가정사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소개, 그리고 사목적 비전에 대한 공유를 요청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합할지는 모르겠으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돋는 이야기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4. [인명구조소(Life Saving Station)¹⁾] ① 배의 침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어느 위험한 해안 지역에 한 때 보잘 것 없는 인명구조소가 있었다. 그 건물은 한낱 오두막집에 지나지 않았고 거기에는 소형 보트 한 대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몇 사람 안

1) 신학자 데오도르 웨델(Theodore Wedel)이 쓴 글입니다.

가족교화세미나

되는 현신적인 구조원들은 철새없이 바다를 지켜보았으며, 자신들은 조금도 돌보지 않고 주야로 지칠 줄 모르고 조난당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었다. 많은 생명들이 이 작은 구조소 때문에 구조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 구조소는 유명해졌다. 여기서 구조 받은 몇 사람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구조소와 관련을 맺고 그들의 시간과 재산과 정력을 바쳐 그 구조사업을 돋기를 지원했다. 여러 척의 보트가 새로 구입되고 새로운 구조대원들이 훈련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 작은 구조소는 크게 확장되었다.

② 이 구조소에서 일하는 몇 사람들은 그 건물이 너무 초라하고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그들은 바다로부터 구조 받은 사람들의 첫 피난처로서는 좀 더 안락한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전의 긴급 대피소를 침대를 갖춘 집으로 개조해서 확장된 건물 안에 보다 나은 가구를 들여놓았다. 이제 그 구조소는 거기에 속한 회원들에게는 아주 인기있는 모임 장소가 되었다. 또한 그들은 그곳을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더할 나위 없는 가구로 채워놓았다. 그곳은 이 사람들이 그 건물을 일종의 사교클럽처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인명 구조의 사명을 위해서 바다로 나가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인명구조원을 고용하기에 이르렀다. 인명 구조의 동기는 아직도 이 클럽 안의 장식에 있어서 지배적이고, 클럽회원의 입회식이 진행되는 방에는 의식 용 구조선이 비치되어 있었다.

③ 때마침 큰 배 한 척이 그 근방 연안에서 파선이 되었는데 그때 고용된 구조원들이 물에 빠져 추위에 떨며 반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트에 가득 실어 들여왔다. 그들은 물결이 혼편없었고, 앓는 사람도 있었다. 검정 피부의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황색 피부를 가진 사람도 있었다. 아름다운 새 클럽 시설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는 곧바로 클럽 바깥에 사워장을 짓고 조난당한 사람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몸을 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다음 모임에서는 클럽 회원들 사이에 의견충돌이 생기게 되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클럽의 정상적인 사교활동에 방해가 되고 또 불쾌하기도 한 클럽의 인명 구조 활동을 중단하기를 원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 쪽에서는 인명구조가 그들의 우선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곳이 아직도 인명 구조소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④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결국 투표에 붙여져서 부결되고 말았다. 그리고 만일 그 연안의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하기를 원한다면 그 구조소가 속해있는 지역 밖

에다 인명구조소를 따로 짓고 구조활동을 하라고 공고한 것이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구조소를 짓고 구조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면서 새 구조소도 옛날의 구조소에서 일어났던 것과 꼭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새 구조소도 클럽으로 바뀌고, 또 다른 구조소가 세워지게 되었다.

⑤역사는 되풀이 되어서 만일 오늘 당신이 이 바다 연안을 가본다면 그 해안에 줄지어 서 있는 수많은 배타적인 클럽 시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 수역에서 배의 조난 사고가 빈번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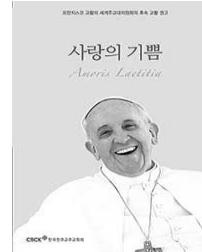
5. 수많은 구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있다는 사실. 수많은 재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환자가 의사들을 위해 있어주어야 하는 것인지, 청소년지도자(교무, 사목자)가 청소년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이 청소년지도자(교무, 사목자)들을 위해 있어주어야 하는 것인지 본질적 성찰은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할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를 기본적 아이덴티티^{Identity}로 부릅니다.

6. 소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족-가정의 개념이 변화될 것임에 대해서는 제 1-2발표를 통하여 주지한 바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정책적 고민을 하는 것은 가톨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은 다르지만 근래에 종교적 왜곡-편향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의 전략 중 하나가 ‘육상담’을 통한 ‘대체가정’의 형성임을 보면, 형태는 다르지만 관계형성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은 우리 사회의 단면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 관계의 본질과 내용-형식이 무엇인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CANON)과 변할 수 있는 것(RUBRICA)에 대한 세련된 탐색으로 본질-아이덴티티^{Identity}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벗어날 때, 그것이 조직관리, 영업-마케팅과 포퓰리즘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회가 종교로부터 무감각하게 되고 있음은 어찌 보면, 종교가 본질-아이덴티티^{Identity}를 놓아두고, 수많은 배타적인 클럽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가족교화세미나

7. (약설하고) 이러한 시점에서, 관계 형성을 위한 본질적 근원인 ‘가족을 교회’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은 매우 중요하리라 봅니다. 가톨릭교회는 가족-가정의 중요성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신앙의 중요한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는 각종 문헌들이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16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은 ‘가정’을 주제로 한 세계주교대의원회의 교황 권고입니다. 교황님께서는 “가정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선포는 참으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혼인과 가정이라는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관대, 헌신, 신의, 인내의 미덕으로 충만한 강한 사랑을 지킬 것을 제안하십니다. 또한 불완전하거나 평화와 기쁨이 없는 가정생활에서 모든 이가 자비와 친교의 정표가 되도록 촉구하십니다.)



8. 가톨릭교회의 전반적인 사목은 ‘가정’을 중심으로 정책적 플랫폼을 형성하기 위하여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기에는 미련스럽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할 우리 사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순기능이요,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16개 교구(군종 포함)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 가톨릭교회에는 교구별로 다양한 생명학교,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성인 중심으로의 ME²)와 젊은이 대상으로의 선택(Choice)³⁾, 그리고 결혼하기 이전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정으로서의 약혼자 주말, 혼인강좌, 젊은이들의 성의식(Sexuality)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들이 대표적입니다.



2) ME는 'Marriage Encounter'의 약자로서, 스페인의 가브리엘 칼보 신부가 제안한 '결혼생활의 새로운 발견'프로그램입니다. 시작은 문제청소년의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개념에서 시작하였습니다.

3) 선택(Coice)이란 일상생활에서 소속감에 대한 중요성을 체험하게 해주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미혼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9. 특히, 청소년교화-사목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은 가톨릭교회의 혼인강좌입니다. 이 교육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수료해야 할 프로그램입니다. 각 교구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존재합니다.



10. 가톨릭교회의 청소년사목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패러다임의 전환을 겪었습니다. ① 1차 시기는 사목적 체계로서 청소년사목이 태생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대략 1980~1990년대를 전후하며, 핵심 담론은 ‘조직화’입니다. 이때는 한국 천주교회의 청소년사목은 주일학교의 체계를 중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회, 혹은 가톨릭 학생회 등으로 불리는 다양한 형태 속에서 활성화되어 왔습니다.

② 2차 시기는 전통적인 체계와 함께 다양한 방식의 청소년사목의 형태가 도전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대략 1990~2000년대를 전후하며, 핵심 담론은 ‘다양화’입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청소년사목은 전통적인 방식의 사목형태 주일학교(청년회) 중심 사목, 동아리 중심 사목과 체계화된 방식의 다른 형태의 사목 범위의 중심 사목, 소공동체 중심 사목, 가정 공동체 중심사목 등과 만남이 모색되었습니다.

③ 3차 시기는 다양한 방식의 청소년사목의 형태가 체계화된 방식의 다른 사목형태와 만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대략 2000~2015년대를 전후하며, 핵심 담론은 ‘체계화’입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청소년사목은 다양화된 사목형태 주일학교(청년회) 중심 사목, 동아리 중심 사목과 체계화된 방식의 다른 형태의 사목 범위의 중심 사목, 소공동체 중심 사목, 가정 공동체 중심사목 등과 만남이 모색되었습니다.

④ 지금 시기는 청소년사목의 4차 변곡점의 시기로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사목은 다양한 방식의 도전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대략 2016년도를 전후하며, 핵심 담론은 ‘통합화’입니다. 한국 천주교회 청소년사목은 기존의 사목형태 주일학교(청년회) 중심 사목, 동아리 중심 사목, 범인형태의 중심사목, 소공동체 중심사목, 가정 공동체 중심사목 등 외에 대한

가족교화세미나

새로운 환경과 마당통합 사목, 속지(屬地)주의와 속인(屬人)주의의 조화, Off-line과 On line의 융합, 내성(Ad intra)와 외성(Ad Extra)의 대화을 조성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메모(memo)

11. 무지로부터 시작된 고집과 교만으로 대화하기 힘든 세뇌된 집단들의 특징에 대하여, '스티브 하산'이 정립한 BITE model이 있습니다. BITE는 Behavior, Information, Thought, Emotional의 약자입니다.⁴⁾ 지금 우리가 종교의 존재이유, 본질 –아이덴티티 Identity에 BITE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본질–아이덴티티 Identity를 잊은 공동체는 어찌 보면, 현대판 면죄부 앞에서 마케팅–영업을 하는 또 하나의 배타적인 클럽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 원기 103년(2018). 열린 마음으로 초대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나눔, 지혜로우신 맘으로 더욱 풍요롭게 채워 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수원교구 성가정 운동 주제가입니다. 함께 나눕니다.

성가정 이뤄요 - 수원교구 '성가정 운동' 주제곡 -

현정수 사도요한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five staves of music in common time (indicated by 'C'). The key signature is one flat (B-flat). The vocal line includes lyrics in Korean and Romanized notation above the notes. Chords are indicated above the staff. The lyrics are:

가족과 함께 - 기도해요 - 우리 함께 대화해요 사랑을
나눠요 성가정 이뤄요 - 신앙의 유산을 보존해요 전달해요
남마다 기도해요 -
함께 모여 사랑나눠요 -
가족과 함께 미사봉헌해요 -
이웃에게 사랑전해요 -

4) 이들의 특징은 이 네 가지가 통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①행동 컨트롤 (Behavior Control)은 대상의 행동을 지시하고 규율을 강요하는 것으로 생각 없이 복종만 하면 되는 군대문화와 상병하복과 유사하다. ②정보 컨트롤 (Information Control)은 정보를 속이고 정보원을 제한하거나 오히려 과한 정보를 주어 분별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③사고 컨트롤 (Thought Control)은 집단에 대한 합리적 분석과 비평적인 사고대신 긍정적인 사고만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④감정 컨트롤 (Emotional Control)은 집단 이탈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죄책감을 주어 지도자와 집단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게 하는 것이다.

성혼여정

成婚旅程

안 · 락 · 한 · 가 · 정 · 으 · 로 · 가 · 는 · 길



성혼여정에 예비부부 10쌍 (신혼부부) 을 초대합니다.

2018년 10월 27일 - 28일 | 드림센터 경주 (교원연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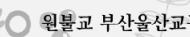
문의 | 원불교 청년회 02-813-3316 / 부산울산교구 051-245-0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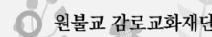
보건복지부



원불교 청년회



원불교 부산울산교구



원불교 감로교화재단

맑고
밝고
훈훈하게

출산선물세트

출산한 교도에게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원불교다운 선물을 주고 싶으셨지요?

일원상과 '맑고 밝고 훈훈하게' 말씀이 담긴 출산 선물 세트를 소개합니다.

새 생명의 탄생은 견줄 수 없는 기쁜일이며, 큰 일입니다.

새 생명이 맑고, 밝고, 훈훈하게 자라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출산을 축하하는 선물세트를 마련했습니다.

* 명명식 기도문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매가격
38,000 원 (택배비 별도)
구매문의 | 네이버 010-3200-1187

봄오소의 블로그를 방문해주세요!
원불교 교리를 고민하여 디자인한 다양한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om_oh_so

NAVER 봄오소



가족교화세미나

원불교 청년회가 준비한 교화용품, 휴대용 멀티스탠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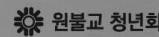
W 스탠드

환경을 생각하고 이웃과 함께하여 만든 W스탠드.
뜻있는 물건을 원불교 청년회가 교화용품으로 제안합니다.
실용적인 W스탠드를 교화에 활용하시고, 원불교 청년회 기금마련에도 동참하세요!

W스탠드는 폐지를 재활용하여 만든 100% 재생지 한 장으로만 만들어졌습니다.
화학적 접착이나 고팅과 같은 어떠한 가공도 하지 않고 최소한의 기술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수명이 다하여 버려질 때에도 자연으로 돌아가거나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구매문의 | 원불교 청년회 02-813-3316



원불교 청년회가 준비한 교화용품, 휴대용 멀티스탠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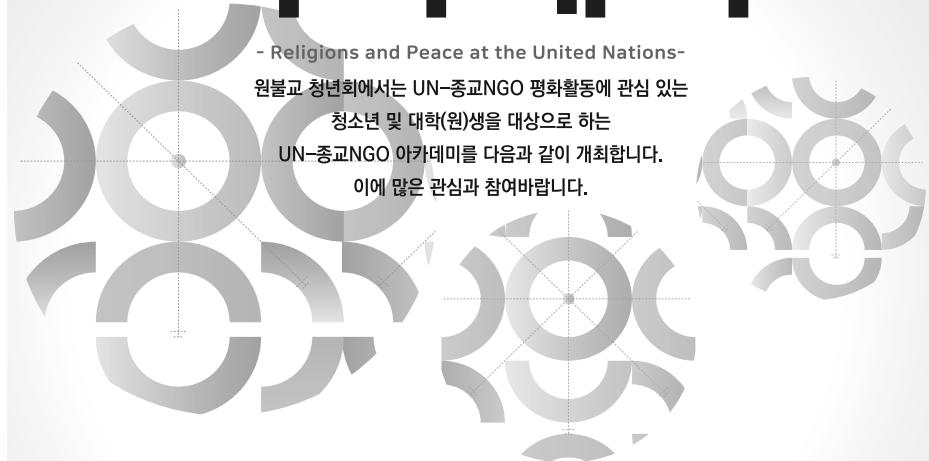
세계결복재단 지원사업

원불교 청년회

UN-종교NGO 아카데미

- Religions and Peace at the United Nations -

원불교 청년회에서는 UN-종교NGO 평화활동에 관심 있는
청소년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UN-종교NGO 아카데미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사업배경 | 세계의 분쟁과 갈등의 주된 원인이 종교임에 따라, 유엔은 세계적인 종교NGO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을 해결해 오고 있다. 유엔 본부에는 '종교NGO위원회'가 설치되어 다양한 종교적 신념을 기반으로 한 NGO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유엔에도 유엔문화연대가 창립되면서 보다 유엔과 종교 간의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세계평화에 대한 첫걸음으로 종교와 평화란 주제로 유엔과 함께 활동하는 종교NGO들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모집대상 | UN-종교NGO 평화활동에 관심 있는 청소년 및 대학(원)생

모집인원 | 15명 내외

접수기간 | 2018년 8월 15일 (수) ~ 9월 21일 (금) 18:00 까지

접수방법 | academy@won.or.kr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 아카데미 참가신청서에 인적사항 및 지원동기 기입 후 이메일 제출

장 소 | 여의도 50+ 플러스센터

프로그램 | UN-종교NGO 아카데미 4회 / 청년평화심포지엄 1회

활동혜택 | 아카데미 수료증 발급 (발행 : (사)평화의 친구들)
우수참가자에게는 나고야 한 일 평화심포지엄 참가 지원
(경비 지원 : 항공료 및 숙소)

문 의 | 원불교 청년회 02-813-3316 / academy@won.or.kr
UN-NGO 아카데미 프로그램 (포스터 참고)

일정 |

일정	시간	주제
9월 29일	10:00-12:00	유네스코 현장과 보편윤리선언
10월 06일	10:00-12:00	유엔문화연대의 설립배경과 평화활동
10월 13일	10:00-12:00	종교연합운동의 역사와 세계평화운동
10월 20일	10:00-12:00	유엔종교NGO위원회와 종교연합운동